

네티즌강추

소리와 음악으로 상처난 영혼 치유하기

소리치료 이정실 역, 학지사

몇 년 전에 <모짜르트 이펙트>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었다.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서술한 개론서였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음악이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 더 깊은 치료의 메카니즘이 궁금했었다. 이 책은 나의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우리는 소리의 세상에 살고 있다. 소리는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음악적일 수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친숙하거나 새로운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주거나 즐거울 수 있고, 건강을 망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소리와 음악이 가지는 원리들을 바탕으로 소리와 음악을 활용하여 자기 성장과 치유, 나아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 소리에 대해 여러 전통들,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접근방법들을 다양하게 안내한다. 또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연습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영식, bibliotherapy.pe.kr)



인도가 낳은 위대한 영혼 투카람의 삶

성자 투카람 저스틴 애버트 지음, 슈리 크리슈나디스 아쉬람 한미대로 위대한 책이다. 이 책은 인도가 낳은 위대한 영혼, 투카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삶의 중반부에 재난을 겪게 된 투카람은 세상의 삶을 버리고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 투카람의 영적인 삶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듯이 성장한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존재의 법칙으로만 자라나서 마침내 완전한 나무가 된다. 하지만 투카람을 안내한 스승은 그의 내면에 있던 자신이 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투카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투카람의 이야기를 들다보면 누구나 세상일에 무관해지고, 박타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 정말 그 말처럼 우리의 가슴에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들게 해주는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 묘사된 투카람의 삶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를 벗어 버린다. 우리의 심정에 호소하며 우리를 영적인 이상으로 이끄는 인간적인 삶의 묘사를 즐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 krishnadass.com/shop)



책속의 밑줄긋기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네 살 난 딸 복순이를 만난 겁니다

○..“애야, 너 지금 몇 살이야, 그리고 이름은?” 할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어서 말해 보라고 독촉합니다. “4살 박장미.” “그래그래, 이름이고, 나이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지.”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네 살 난 딸 복순이를 생각하며 보육원에서 여자 아이의 가슴에 풀각시를 안겨 줍니다. “이 풀각시 너 주려고 내가 만들었다. 네가 이 풀각시의 주인이야.”

할머니는 지금 딸 복순이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여자 아이는 풀각시를 안고 좋아서 입이 함박만큼 벌어집니다. 할머니는 여자 아이를 살피며 품에 안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는 내 딸 복순이야.”

여자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할 웃음을 짓습니다. 눈물에 젖은 할머니의 얼굴에도 얇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참여하려는 연락을 받습니다. -<풀각시> 본문 31쪽에서, 김선주 지음, 창개구리



조건없는 사랑이야말로 우울증의 묘약

‘사랑’

사랑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아픔과 행복을 함께 준다. 왜 그럴까?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의 영혼이 언제부터인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이치 때문일까.

저자는 사랑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깨달음이라고. 사랑이 괴로운 것은 감각과 기억에 의해 생긴 오해와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오해와 집착하는 사이에서 괴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기교씨의 첫 번째 장편소설 <사랑은 우울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불안정한 두 남녀는 거짓 없는 솔직한 속삭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통은 우울에서 출발한다. 우울은 세상에 대한 단절이며 자신에 대한 포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 김승미는 우울하다. 자신과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으로 단절되어 있다. 우울증 때문에 괴박해진 여주인공은 자기 집에 하숙하며 온 세상에 물들지 않는 혼스러운 남자를 만나고 세상에 대해 문을 연다.

여자는 도시에 제되지 않은 남자에 푸근함을 느끼고 남자는 성감에 가린 여자의 순수함을 좋아한다. 애교가 전혀 없는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고 연인으로 만든 다음 마음껏 성질을 부린다. 남자는 여자가 심하게 대하지만 자기를 통해 영혼의 숨을 쉬는 것을 알고는 바보처럼 순종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녀를 더 사랑할까 생각한다. 남자는 여자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싶어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껏 기댄다.

여자는 서서히 자기의 매력과 재능을 알아간다. 우울증이 치유될 즈음 여자는 세련되고 지적이며 부유한 남자를 알게 된다. 여자는 새로운 남자를 통해 소비의 매력에 빠져간다. 남자는 점점 소외되다 여자와 멀어진다. 이번에는 남자가 우울증에 빠진다. 연직의 등장과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남

자의 우울증이 극으로 흐를 때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말없이 도시를 떠난다.

이별을 인정한 남자는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다 그녀를 위해 철쭉을 심은 지리산을 찾는다. 잘 자란 철쭉을 보며 남자는 자신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내면이 정화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사랑이란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발견한다.

<사랑은 우울했다>에서 작가는 우울증의 묘약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누구나 고통 받는 존재임을 안다면 서로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신분 성별 학력 장애로 차별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고도 얘기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 까닭은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란단다.

사랑은 우울증의 치료와 관계있다는 것이 작가의 믿음이다. 완전한 평화를 얻는 첫걸음은 사랑이며, 그것은 다른 생명과 관계를 맺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 소설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는 모든 연인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돌아보게 한다. 또 스스로의 삶에 비춰 보기도 하고 곁에 있는 연인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준다.

작가는 말한다.

“살아 있는 존재들은 우울증을 거쳐야 하며, 일생 동안 조증과 우울을 반복한다.”

한편 소설 속에 삽입된 ‘철쭉의 전설’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층 강화시킨다.

별 왕자와 꽃 공주의 애잔하면서도 비극적인 사랑은 우주의 존재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어둠과 밝음, 행복과 불행, 악과 선과 같은 대립

축은 서로가 서로를 유지시켜 주는 양면이다. 현실에서의 사랑이 행복과 불행, 진실과 오해, 그리고 서로 원하는 욕망이 평행선처럼 이어가는 부조리는 주인공 나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후회없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 존재의 내밀한 곳에 깊은 상처까지 내려앉아 있는 우울의 본질. 그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작가가 제시하는 사랑은 결국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 매력이 사라져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배기교씨는 대구 경북고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건인네트 기획실을 거쳐 넷뉴스 대표이사, SCG 그룹 SP 본부장(이사), 동양시스템즈 차장, 강동구청 기술고문 등으로 일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소설의 무대이기도 한 지리산 천황봉에 올라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 작가 배기교씨.



사랑은 우울했다 배기교 지음 열린박물관 | 8900원

“사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거든 상호 의존하는 존재의 본질 깨달아야”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창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책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호 또는 144호)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볼으로써, 하락리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재미두수 CD

석왕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재미두수 성운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책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김재운, 2006년 3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제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재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